

## 54세 고현정, 여대생 미모...압도적 청순미

등록 2025.11.06 07:59:50



[서울=뉴시스] 고현정. (사진=고현정 인스타그램 캡처) 2025.11.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신호령 기자 = 배우 고현정이 근황을 밝혔다.

고현정은 지난 5일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withloveseoul. 티파니앤코"라고 적고 여러 장의 사진을 올렸다.

사진 속 고현정은 긴 생머리를 늘어뜨린 채 청순한 매력을 뽐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우아한 매력을 발산했다. 세계적 주얼리 브랜드 '티파니앤코(TIFFANY&Co)' 목걸이·귀걸이·반지로 세련미를 자아냈다.

독보적인 미모, 맑은 피부가 이목을 끌었다.

54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는 동안 미모가 돋보였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예뻐요", "눈부시게 아름다워요" 등의 댓글을 올렸다.

한편 고현정은 1989년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에서 선으로 뽑히며 연예계에 데뷔했다. 1995년 SBS TV 드라마 '모래시계'로 스타덤에 올랐다.

드라마 '봄날'(2005) '여우야 뭐하니'(2006) '히트'(2007) '대물'(2010) '여왕의 교실'(2013) '리턴'(2018) '동네변호사 조들호2: 죄와 벌'(2019) '마스크걸'(2023), 영화 '잘 알지도 못하면서'(2009) '여배우들'(2009) 등 다양한 히트작을 내놨다.

올해 지니TV 오리지널 드라마 '나미브', SBS TV 금토 드라마 '사마귀 : 살인자의 외출' 등에서 활약했다.



[서울=뉴시스] 고현정. (사진=고현정 인스타그램 캡처) 2025.11.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현정. (사진=고현정 인스타그램 캡처) 2025.11.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현정. (사진=고현정 인스타그램 캡처) 2025.11.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공감언론 뉴시스 snow@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